

삼양사, 사료사업 포기 화학 “집중”

사료사업 아이피드에게 양도 ... 핵심역량 화학·식품에 주력기로

삼양사가 화학·식품사업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.

삼양사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사료사업 부문을 이지바이오시스템의 자회사인 아이피드에 양도하고 화학 및 식품 등 핵심 사업 부문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1월30일 발표했다.

삼양그룹은 2011년 11월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면서 삼양사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삼양사, 삼양바이오팜으로 분할된 바 있다.

삼양사 관계자는 “36년간 육성해 온 사료사업을 양도하게 돼 아쉬움이 크지만 사료 전문기업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삼양사는 2010년 기준 매출 1조6654억9700만원, 영업이익 314억7600만원, 당기순이익 1234억540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30>